

1. 다음 <표>는 2026년 4월 ‘갑’ 회사 의무실 의약품 지급 전체 내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26년 4월 의약품 지급 전체 내역

일자\구분	직원		의약품	
	부서	직급	유형	지급량
2일 목요일	인사팀	팀장	진통제	1정
2일 목요일	재무팀	사원	소화제	1정
3일 금요일	인사팀	대리	소화제	2정
6일 월요일	홍보팀	팀장	진통제	1정
6일 월요일	인사팀	대리	소화제	2정
10일 금요일	재무팀	팀장	숙취해소제	2정
13일 월요일	재무팀	사원	진통제	1정
13일 월요일	홍보팀	사원	소화제	1정
16일 목요일	인사팀	대리	숙취해소제	1정
17일 금요일	인사팀	대리	진통제	1정
20일 월요일	재무팀	팀장	진통제	2정
21일 화요일	인사팀	사원	진통제	1정
24일 금요일	인사팀	대리	숙취해소제	1정
27일 월요일	홍보팀	사원	소화제	1정
27일 월요일	인사팀	팀장	진통제	2정
30일 목요일	재무팀	대리	진통제	1정

※ 4월 중 ‘갑’ 회사 직원의 인사이동 및 겸직은 없음.

- ① 소화제를 지급받은 팀장은 없다.
- ② 숙취해소제는 금요일에만 지급되었다.
- ③ 하루에 의약품 2정을 지급받은 사원은 없다.
- ④ 모든 월요일에는 진통제가 지급되었다.
- ⑤ 홍보팀 직원은 월요일에만 의약품을 지급받았다.

2. 다음 <표>는 2024년과 2025년 과일 A ~ E의 재배면적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 ~ E 중 포도에 해당하는 것은?

<표> 2024년과 2025년 과일 A ~ E의 재배면적
(단위: ha)

과일\구분	연도	유목면적	성목면적
A	2024	9,992	23,254
	2025	10,430	22,875
B	2024	997	8,364
	2025	1,001	8,132
C	2024	1,210	8,091
	2025	1,214	8,001
D	2024	1,523	12,616
	2025	1,424	12,356
E	2024	5,203	15,234
	2025	5,168	15,281

※ 재배면적 = 유목면적 + 성목면적

<정 보>

○ 2025년 포도 재배면적은 10,000 ha 이상이다.

○ 포도의 성목면적은 2025년이 2024년보다 작다.

○ 2025년 포도는 성목면적이 유목면적의 2.5배 이상이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3. 다음 <표>는 국가 A ~ F의 인구수와 국회의원 수 및 민주주의 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국가 A ~ F의 인구수와 국회의원 수 및 민주주의 점수
(단위: 만 명, 명, 점)

구분 국가	인구수	국회의원 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민주주의 점수
A	6,775	925	73,243	100
B	8,320	667	124,732	90
C	5,911	600	98,516	96
D	5,174	300	172,483	88
E	4,742	615	77,099	98
F	3,825	443	86,334	97

<보 기>

- ㄱ.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국회의원 수도 가장 많다.
- 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민주주의 점수는 높다.
- ㄷ. 민주주의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의 국회의원 수는 민주주의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 국회의원 수의 3배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4. 다음 <표>는 2025년 ‘갑’국의 조세불복에 대한 결정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25년 ‘갑’국의 조세불복에 대한 결정 현황
(단위: 건)

조세불복 유형		심판청구		심사청구	
세목	결정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소득세		2	14	1	3
법인세		1	30	0	1
부가가치세		2	22	2	4
양도·상증세		1	28	0	4
전체		6	94	3	12

※ 1) 조세불복 유형은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로만 구분됨.

2) 결정건수 = 인용건수 + 기각건수

3) 인용비율(%) = $\frac{\text{인용건수}}{\text{결정건수}} \times 100$

- ① 심판청구의 인용비율이 높은 세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상증세 순이다.
- ② 소득세 심사청구의 인용비율은 25 %이다.
- ③ 양도·상증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모두 기각이다.
- ④ 심판청구의 전체 인용비율은 심사청구의 전체 인용비율보다 낮다.
- ⑤ 심판청구의 결정건수가 많은 세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법인세, 양도·상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순이다.

5. 다음 <표>는 2025년 A 기관이 접수한 건설현장 민원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5년 유형별 건설현장 민원 건수
(단위: 건)

유형	체불 해결	건설기술 자문	행정·법적 지원	기타
건수	15	8	5	17

<표 2> 2025년 월별 건설현장 민원 건수
(단위: 건)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건수	3	2	3	4	4	2
하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2	4	5	4	6	6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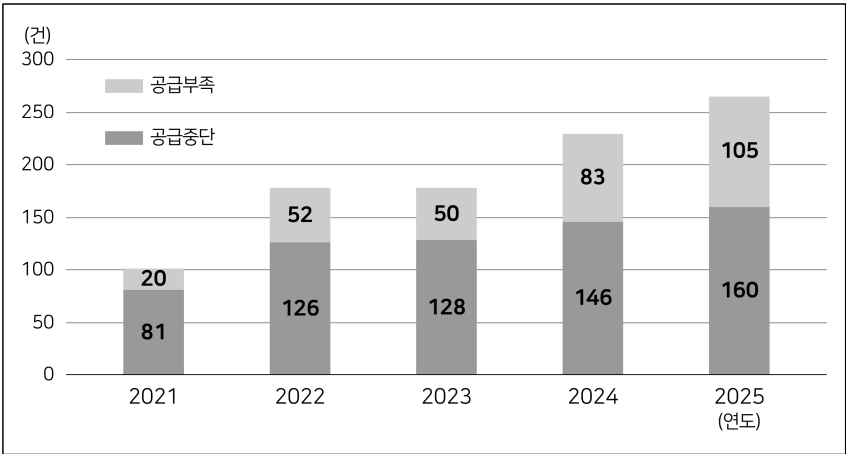
A 기관은 모범적인 건설문화를 정착하고자 기관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민원을 접수하였다. 그 결과, ㉠ 2025년 전체 민원 건수는 45건이었다. 이 중, ㉡ ‘체불 해결’ 민원 건수는 전체 민원 건수의 35 % 이상을 차지하였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 상반기와 하반기 민원 건수를 비교했을 때, 하반기가 상반기의 2배 이상이었다. ㉣ 2026년 월평균 민원 건수가 2025년 하반기 월평균 민원 건수와 같다면, 2026년 전체 민원 건수는 50건 이상이 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6. 다음은 2021 ~ 2025년 ‘갑’국의 의약품 공급불안 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2021 ~ 2025년 ‘갑’국의 의약품 공급불안 건수



※ 공급불안 건수 = 공급중단 건수 + 공급부족 건수

- ① 공급불안 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 ② 2021년 공급중단 건수는 2024년 공급부족 건수보다 많다.
- ③ 매년 공급부족 건수가 공급중단 건수보다 많다.
- ④ 공급불안 건수 중 공급부족 건수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였다.
- ⑤ 2022년 이후 공급중단 건수가 공급부족 건수의 3배 이상인 해는 없다.

7. 다음 <표>는 2025년 ‘갭’국 영유아 양육자의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영유아 양육자의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 현황
(단위: %)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전체
	구분		현재 이용	필요시 이용	제도 있으나 이용 불가	제도 미도입	제도 적용대상 아님	제도 이용의사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5	17.5	41.1	13.7	8.9	10.3	100
유연근무			7.7	19.4	36.6	19.4	9.1	7.8	100
재택근무			3.5	11.6	32.4	33.1	15.0	4.4	100
가족돌봄휴가			3.9	21.5	36.3	21.6	9.7	7.0	100

※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률은 ‘현재 이용’과 ‘필요시 이용’ 비율의 합임.

<보고서>

‘갭’국 영유아 양육자의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돌봄시간 지원제도별 이용률은 ‘유연근무’가 27.1 %로 가장 높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6.0 %, ‘가족돌봄휴가’ 25.4 %, ‘재택근무’ 15.1 % 순이다.

월평균 가구 소득 구간별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률은 2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재택근무’가 가장 높고, 5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유연근무’가 가장 높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유연근무’ 이용률은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형태에서 가장 낮고, ‘재택근무’ 이용률은 ‘부부 모두 시간제 근로’ 형태에서 가장 높다. 한편, ‘재택근무’의 거주지역별 이용률은 대도시가 17.5 %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8.8 %에 그친다.

<보 기>

ㄱ. 월평균 가구 소득 구간별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률
(단위: %)

돌봄시간 지원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가족돌봄 휴가
월평균 가구 소득 구간				
200만 원 미만	14.8	11.1	22.2	7.4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2.2	24.6	13.5	23.0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20.9	17.6	12.0	22.1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7.2	28.5	12.4	23.3
500만 원 이상	28.2	30.5	17.2	28.1

ㄴ.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낮시간 양육방식 현황
(단위: %)

구분	낮시간 양육 방식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반일제 기관이용	비혈연 인력 활용	혈연 인력 활용	부모 직접돌봄
맞벌이 가구		61.8	19.2	5.0	1.8	3.1	9.1
비맞벌이 가구	홀벌이	49.0	19.3	2.6	0.0	1.0	28.1
	기타	33.3	0.0	33.3	0.0	0.0	33.4

ㄷ.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형태별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률
(단위: %)

돌봄시간 지원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가족돌봄 휴가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형태				
부부 모두 전일제 근로	32.6	31.0	15.5	29.5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20.0	24.5	20.0	24.5
부부 모두 시간제 근로	42.9	28.6	57.2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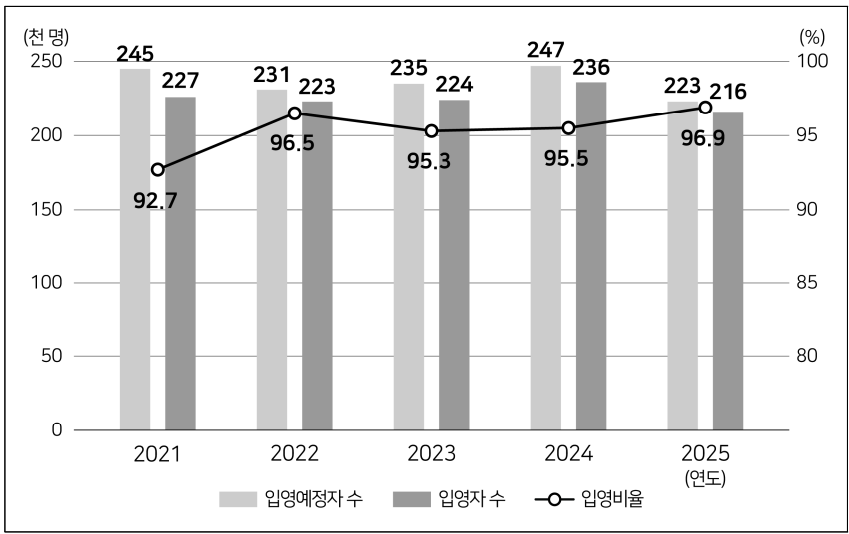
ㄹ. ‘재택근무’의 거주지역별 이용 현황
(단위: %)

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전체
구분	현재 이용	필요시 이용	제도 있으나 이용 불가	제도 미도입	제도 적용 대상 아님	제도 이용 의사 없음	
거주지역							
대도시	4.1	13.4	33.1	32.5	13.5	3.4	100
중소도시	2.8	9.5	33.1	32.3	17.8	4.5	100
읍면지역	2.2	6.6	25.0	39.7	16.2	10.3	100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8. 다음은 2021 ~ 2025년 ‘갭’국의 현역병 입영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2021 ~ 2025년 ‘갭’국의 현역병 입영 현황



※ 입영비율(%) = $\frac{\text{입영자 수}}{\text{입영예정자 수}} \times 100$

<보 기>

- ㄱ. 입영예정자 수가 가장 많은 해에 입영자 수도 가장 많다.
- ㄴ. 2021년 대비 2025년 입영자 수의 감소율은 10 % 이하이다.
- ㄷ. 입영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이 2025년의 4배 이상이다.
- ㄹ. 입영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에 입영비율도 가장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9. 다음 <보고서>는 2025년 ‘갑’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자료는?

<보고서>

2025년 ‘갑’국의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5조 원이었다. 학교급별 총액은 초등학교가 12.2조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다음은 고등학교, 중학교 순이었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 대비 51.9% 증가하였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5.8% 감소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7.9% 감소하여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가구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구 자녀수가 3명 이상일 때 가장 적었다.

2025년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 대비 4.3%p 하락하였으며, 주당 참여시간은 7.1시간으로 전년 대비 0.5시간 감소하였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그다음은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었으며,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소득수준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은 84.9%였던 반면, 소득수준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참여율은 52.8%였다. 두 집단 간 참여율 격차는 32.1%p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2024년과 2025년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참여시간 (단위: %, 시간)

연도\구분	사교육 참여율			주당 참여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4	80.0	87.7	78.0	67.3	7.6	7.8
2025	75.7	84.4	73.0	63.0	7.1	7.4

② 2024년과 2025년 가구 소득수준별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단위: %)

가구 소득수준\연도	2024	2025
전체	80.0	75.7
300만 원 미만	58.1	52.8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68.2	64.2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77.3	71.0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82.0	74.9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83.9	78.9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86.2	83.1
800만 원 이상	87.6	84.9

③ 2024년과 2025년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단위: 억 원, %)

연도\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4	132,256	78,338	81,324
2025	121,744	75,794	77,463
전년 대비 증가율	-7.9	-3.2	-4.7

④ 2016 ~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및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조 원, %)

연도\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액	18.1	18.7	19.5	21.0	19.4	23.4	26.0	27.1	29.2	27.5
전년 대비 증가율	1.3	3.3	4.3	7.7	-7.6	20.6	11.1	4.2	7.7	-5.8

⑤ 2024년과 2025년 가구 자녀수별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단위: %)

연도\가구 자녀수	2024	2025
1명	83.6	79.6
2명	82.0	77.4
3명 이상	71.6	67.7

10. 다음 <표>는 2025년 기업 A ~ D의 경영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25년 기업 A ~ D의 경영 실적 (단위: 억 원)

기업\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전년도 매출액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
A	500	50	476	24
B	800	64	714	86
C	400	()	408	-8
D	1,000	50	926	()
전체	2,700	224	2,524	176

※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 ① 영업이익이 가장 큰 기업은 C이다.
- ②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D이다.
- ③ B의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의 30% 이상이다.
- ④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A이다.
- ⑤ 기업 A ~ D의 매출액 평균은 600억 원 이상이다.

11. 다음은 ‘갑’국의 기반시설 분야별 안전등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갑’국의 기반시설 분야별 안전등급 현황

						
분야	항공	교량	교통	댐	식수	에너지
2015년	B	C	B	A	A	C
2020년	B	C	C	A	A	C
2025년	A	D	C	A	B	B

						
분야	유해폐기물	내륙수로	제방	공원	항만	철도
2015년	E	E	D	C	C	C
2020년	D	D	C	D	E	A
2025년	D	C	C	D	B	A

						
분야	도로	학교	고형오물	오수	폭우	통신
2015년	B	B	C	B	B	B
2020년	B	A	D	A	B	B
2025년	B	A	D	A	B	B

※ 1) ‘갑’국의 기반시설 분야는 위에 제시된 18개로만 구분됨.
2) 안전등급을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A, B, C, D, E 순임.

<보 기>

- ㄱ. 2015년 안전등급이 B인 기반시설 분야 수는 7개이다.
- ㄴ. 2015년 안전등급과 2025년 안전등급이 같은 기반시설 분야는 댐, 도로, 폭우, 통신뿐이다.
- ㄷ. 2020년 대비 2025년 안전등급이 높아진 기반시설 분야 수는 2015년 대비 2020년 안전등급이 높아진 기반시설 분야 수보다 많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2. 다음 <표>는 2023 ~ 2025년 ‘갑’국의 A 장학금 지원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3 ~ 2025년 ‘갑’국의 A 장학금 지원사업 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개교)

구분 \ 연도	2023	2024	2025
예산편성액	49,109	44,551	46,830
지원액	48,406	44,097	46,252
지원인원 수	5,408	5,104	5,256
참여대학 수	242	235	238

※ 예산집행률(%) = $\frac{\text{지원액}}{\text{예산편성액}} \times 100$

<보 기>

- ㄱ. 2024년 예산집행률은 95 % 이상이다.
- ㄴ. 2023년 대비 2025년 지원액 감소율은 2023년 대비 2025년 지원인원 수 감소율보다 낮다.
- ㄷ. 지원인원 1인당 지원액은 2024년이 2023년보다 작다.
- ㄹ. 참여대학 1개교당 지원액은 2025년이 2023년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13. 다음 <표>는 2024년과 2025년 ‘갑’국의 A 물품 수입 및 수입검사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4년과 2025년 A 물품 수입 및 수입검사 현황
(단위: 천 건)

연도	구분	수입 건수	수입검사 건수	적발 건수
2024	전체	()	2,165	226
	항공	24,856	1,222	135
	해운	22,363	943	()
2025	전체	64,816	1,925	240
	항공	31,818	1,123	130
	해운	()	802	110

※ A 물품은 항공 또는 해운 중 하나로만 수입됨.

<보 기>

- ㄱ. 2025년 전체 수입 건수는 전년 대비 40 % 이상 증가하였다.
- ㄴ. 수입 건수는 매년 항공이 해운보다 많다.
- ㄷ. 2024년 해운 수입검사 건수 대비 해운 적발 건수의 비율은 10 % 이하이다.
- ㄹ. 전체 수입 건수 대비 전체 수입검사 건수의 비율은 2025년이 2024년보다 낮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14. 다음 <표>는 2018 ~ 2025년 ‘갑’국의 복권 종류별 판매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18 ~ 2025년 ‘갑’국의 복권 종류별 판매액
(단위: 억 원)

연도\종류	온라인 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결합복권	전자 복권	전체
2018	39,687	2,466	1,040	655	43,848
2019	43,181	3,103	1,029	619	47,932
2020	47,370	3,688	2,255	839	54,152
2021	51,371	4,416	2,913	1,053	59,753
2022	54,468	5,679	2,930	1,216	64,293
2023	56,526	6,580	3,151	1,251	67,508
2024	59,562	8,947	3,417	1,424	73,350
2025	62,168	9,623	3,413	1,378	76,582

※ 복권 종류는 ‘온라인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결합복권’, ‘전자복권’으로만 구분됨.

- ① ‘전자복권’ 판매액은 매년 증가한다.
- ② 2020년 전체 복권 판매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 % 이하이다.
- ③ ‘온라인복권’ 판매액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은 전체 복권 판매액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과 매년 같다.
- ④ 2024년 전체 복권 판매액 중 ‘온라인복권’ 판매액의 비중은 90 % 이상이다.
- ⑤ ‘즉석식 인쇄복권’ 판매액이 가장 큰 해는 ‘추첨식 결합복권’ 판매액이 가장 큰 해와 같다.

15. 다음은 기상전문기관이 발표한 ‘갑’시의 2026년 3월 날씨에 관한 보도자료 중 일부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기>의 자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갑’시의 2026년 3월 날씨

(단위: °C)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1	2	3	4	5	6	7
날씨							
일최고기온	3	5	9	10	6	4	6
일최저기온	-5	-6	-1	-1	-2	-2	-1

날짜	8	9	10	11	12	13	14
날씨							
일최고기온	8	5	12	13	8	15	17
일최저기온	-1	-2	-2	7	-1	-1	7

날짜	15	16	17	18	19	20	21
날씨							
일최고기온	21	17	18	12	12	5	8
일최저기온	11	7	6	1	4	0	1

날짜	22	23	24	25	26	27	28
날씨							
일최고기온	15	14	14	10	8	17	14
일최저기온	1	6	5	6	1	1	11

날짜	29	30	31
날씨			
일최고기온	17	19	16
일최저기온	9	7	6

※ 1) : 맑음, : 구름조금, : 흐림, : 눈, : 비
2) 일교차 = 일최고기온 - 일최저기온

<보 기>

ㄱ. 2026년 3월 날씨별 날짜수

(일)	10	7	1	6	7
	맑음	구름조금	흐림	눈	비

ㄴ. 2026년 3월 1 ~ 10일 일교차별 날짜수 (단위: 일)

일교차	6°C	7°C	8°C	9°C	10°C	11°C	12°C	13°C	14°C
날짜수	1	2	2	1	1	1	1	0	1

ㄷ. 2026년 3월 날씨별 일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날짜

날씨	맑음	구름조금	흐림	눈	비
날짜(요일)	15(일)	27(금)	11(수)	22(일)	29(일)

ㄹ. 2026년 3월 날씨가 ‘비’인 날의 일최저기온 구간별 날짜수 (단위: 일)

일최저기온 구간	0°C 미만	0°C 이상 5°C 미만	5°C 이상 10°C 미만	10°C 이상
날짜수	2	1	3	1

16. 다음 <표>는 보조배터리 A ~ F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보조배터리 A ~ F의 사양 및 가격
(단위: Wh, 분, g, 원)

구분 보조배터리	표시용량	방전용량	고속충전 시간	일반충전 시간	무게	가격
A	38.5	30.5	62	100	222	20,900
B	37.0	30.6	70	108	239	17,900
C	37.0	29.6	60	104	218	42,100
D	37.0	25.6	52	91	220	35,400
E	38.5	31.2	64	113	176	22,300
F	37.0	33.8	54	93	227	21,900

<표 2> 보조배터리 A ~ F의 부가기능 현황

구분 보조배터리	부가기능 생활방수 기능	부가기능 자석식 부착 기능	부가기능 손전등 기능
A	×	○	×
B	×	×	×
C	○	○	×
D	×	×	○
E	○	×	×
F	×	×	×

※ ○: 있음, ×: 없음

- ① ‘표시용량’ 대비 ‘방전용량’ 비율은 F가 가장 높다.
- ② ‘일반충전시간’이 가장 짧은 보조배터리가 ‘고속충전시간’도 가장 짧다.
- ③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보조배터리는 생활방수 기능이 없는 보조배터리보다 가볍다.
- ④ 자석식 부착 기능이 있는 보조배터리 가격의 평균은 자석식 부착 기능이 없는 보조배터리 가격의 평균보다 높다.
- ⑤ 손전등 기능이 있는 보조배터리 가격은 가장 저렴한 보조배터리 가격의 2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17. 다음 <표>는 2024년 국방비지출액 상위 10개국 국방비지출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4년 국방비지출액 상위 10개국 국방비지출 현황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	국방비지출액	전년 대비 증가율	GDP 대비 비중
1	미국	9,680	6.9	3.3
2	중국	2,350	7.1	1.3
3	러시아	1,203	60.8	5.5
4	독일	860	35.0	1.8
5	영국	811	10.3	2.3
6	인도	744	1.1	2.0
7	사우디아라비아	717	3.8	6.5
8	프랑스	640	6.7	2.0
9	일본	530	8.2	1.3
10	한국	439	0.5	2.4

※ (해당 국가) GDP 대비 비중(%) = $\frac{\text{(해당 국가) 국방비지출액}}{\text{(해당 국가) GDP}} \times 100$

<보 기>

- ㄱ. 2023년 국방비지출액은 프랑스가 독일보다 크다.
- ㄴ. 2024년 상위 10개국 국방비지출액의 합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 이상이다.
- ㄷ. 2024년 GDP는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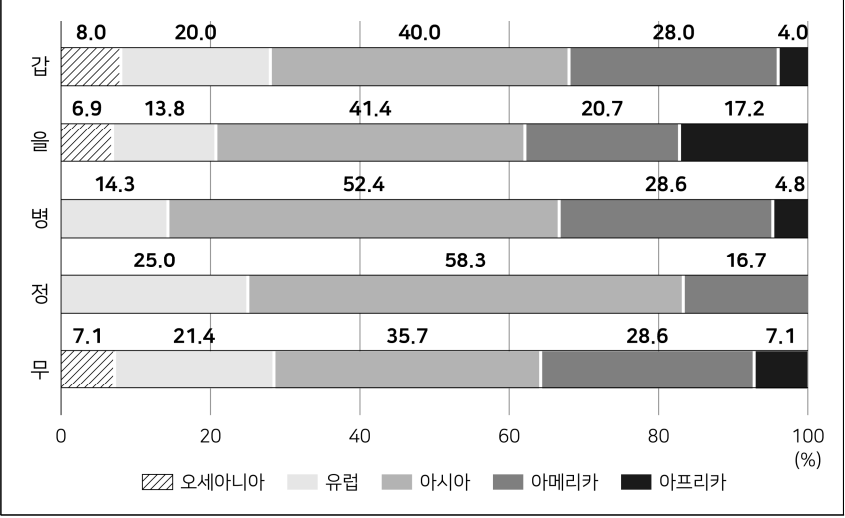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18. 다음은 2025년 ‘갑’ ~ ‘무’ 광역시의 자매도시 101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25년 ‘갑’ ~ ‘무’ 광역시의 자매도시 수
(단위: 개)

광역시	갑	을	병	정	무
자매도시 수	25	29	21	12	14

<그림> 2025년 ‘갑’ ~ ‘무’ 광역시 자매도시의 지역별 구성비



※ 자매도시는 서로 중복되지 않음.

- ① 자매도시 수가 많은 지역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순이다.
- ② ‘정’의 아시아 지역 자매도시 수는 ‘갑’의 아메리카 지역 자매도시 수보다 많다.
- ③ 광역시별 아시아 지역 자매도시 수를 비교하면, 가장 많은 광역시가 가장 적은 광역시의 3배 이상이다.
- ④ ‘무’의 아메리카 지역 자매도시 수는 ‘병’의 유럽 지역 자매도시 수의 2배 이상이다.
- ⑤ 아프리카 지역 자매도시 수에서 ‘을’의 자매도시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 이하이다.

[19 ~ 20] 다음 <표>는 ‘갑’국의 2024년과 2025년 업종별 재해 사망사고 발생현황과 2025년 건설업 및 제조업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갑’국의 업종별 재해 사망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명)

업종	연도 구분	2025		2024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전체		553	589	584	598
광업		6	6	1	1
건설업		272	276	297	303
제조업		146	175	165	17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	8	7	7
운수·창고 및 통신업		21	23	17	17
임업		6	6	7	()
어업		1	1	1	1
농업		7	()	14	14
기타		86	87	75	78

<표 2> 2025년 ‘갑’국의 건설업 및 제조업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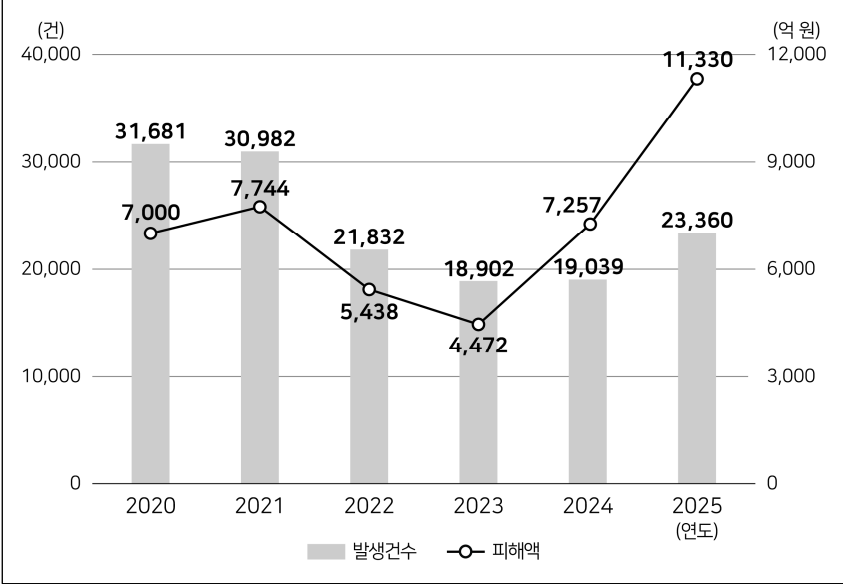
재해유형	업종 구분	건설업		전년 대비 증가		제조업		전년 대비 증가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발생 건수	사망자 수
전체		272	276	-25	-27	146	175	-19	5
떨어짐		159	159	-21	-23	21	21	-10	-10
넘어짐		0	0	-3	-3	0	0	0	0
깔림·뒤집힘		14	15	0	1	19	21	1	3
부딪힘		16	16	-14	-14	18	18	-11	-11
물체에 맞음		40	40	8	8	21	21	4	4
무너짐		12	13	-8	-11	3	3	-3	-3
끼임		8	8	0	0	41	41	5	5
절단·베임·찔림		1	1	0	0	0	0	-1	-1
감전		13	13	9	9	3	3	0	0
화재·폭발·파열		2	2	2	2	10	35	-9	13
이상온도 접촉		1	1	0	0	1	1	-1	-2
화학물질 누출·접촉		3	3	3	3	4	6	3	5
산소결핍		0	0	-1	-1	1	1	0	-1
빠짐·익사		3	5	0	2	4	4	3	3
기타		0	0	0	0	0	0	0	0

19. 위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타’를 제외하고 2024년 대비 2025년 재해 사망사고 발생건수의 증감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광업’이다.
 - ② 2025년 ‘농업’ 사망자수는 2024년 ‘임업’ 사망자수보다 많다.
 - ③ ‘기타’를 제외하고 2024년 대비 2025년 사망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다.
 - ④ 2024년 대비 2025년 ‘부딪힘’ 사망자수의 증감 방향은 ‘건설업’과 ‘제조업’이 같다.
 - ⑤ 2025년 ‘제조업’ 사망자수가 ‘건설업’ 사망자수보다 많은 재해 유형은 6개이다.

20. 위 <표>를 근거로 2024년 ‘건설업’과 ‘제조업’ 각각에서 사망자수가 두 번째로 많은 재해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건설업 | 제조업 |
|----------|-----|-----|
| ① 물체에 맞음 | | 떨어짐 |
| ② 물체에 맞음 | | 부딪힘 |
| ③ 부딪힘 | | 떨어짐 |
| ④ 부딪힘 | | 부딪힘 |
| ⑤ 무너짐 | | 끼임 |

21. 다음은 2020 ~ 2025년 ‘갑’국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2020 ~ 2025년 ‘갑’국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



<표> 2020 ~ 2025년 ‘갑’국의 피해자 연령대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단위: 건)

연령대 연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20	5,322	4,403	7,698	9,219	4,181	858
2021	5,452	3,284	6,754	9,573	4,771	1,148
2022	6,811	1,812	3,405	5,370	3,471	963
2023	8,883	1,625	2,324	3,156	2,135	779
2024	5,352	2,156	3,200	4,828	2,456	1,047
2025	5,770	2,510	2,992	4,794	5,801	1,493

<보 기>

- ㄱ. 발생건수 대비 피해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해는 2023년이다.
- ㄴ. 피해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이 2025년보다 높다.
- ㄷ. 2023년 전체 발생건수 중 피해자 연령대가 50대 이하인 발생건수의 비중은 90 % 이상이다.

22. 다음 <표>는 조선왕릉 능역 4개소의 수종별 목본 수와 생태계교란 초본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조선왕릉 능역 4개소의 수종별 목본 수 현황 (단위: 본)

수종 \ 능역	서오릉	서삼릉	융릉·건릉	장릉
소나무	25,922	1,600	14,430	6,784
졸참나무	15,553	1,210	2,658	1,719
신갈나무	74,254	5,374	19,747	17,890
잣나무	3,679	0	3,190	2,137
상수리나무	14,550	1,415	8,127	2,509
굴참나무	18,229	123	1,215	465
리기다소나무	13,379	0	1,519	0
자작나무	334	0	76	0
일본잎갈나무	0	0	0	2,045
전체	165,900	9,722	50,962	33,549

<표 2> 조선왕릉 능역 4개소의 생태계교란 초본 현황 (단위: 개, m²)

능역 \ 구분	개체 수	분포 면적
서오릉	8,723	7,300
서삼릉	34,327	6,130
융릉·건릉	11,246	10,470
장릉	14,510	4,530

- ① 일본잎갈나무를 제외하고 수종별 목본 수에서 ‘서오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 % 이상이다.
- ② 소나무 대비 신갈나무 목본 수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능역의 수종은 8종이다.
- ③ ‘서오릉’과 ‘서삼릉’은 목본 수가 세 번째로 많은 수종이 같다.
- ④ 생태계교란 초본의 분포 면적 대비 개체 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능역은 전체 목본 수가 가장 많다.
- ⑤ 전체 목본 수 대비 생태계교란 초본 개체 수의 비율은 ‘장릉’이 ‘융릉·건릉’의 2배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23. 다음 <표>는 2025년 ‘갑’시 A ~ E 구의 소방 출동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5년 ‘갑’시 A ~ E 구의 소방 출동 실적
(단위: 명, 건)

구\구분	인구수	소방직 공무원 수	출동 건수	조치 건수	미조치 건수	구조 인원수
A	105,077	197	2,590	2,148	442	482
B	292,837	267	3,759	3,108	651	702
C	217,032	200	2,712	2,257	455	426
D	431,587	337	5,634	()	747	611
E	416,012	334	6,793	5,172	1,621	676

※ 조치 비율(%) = $\frac{\text{조치 건수}}{\text{출동 건수}} \times 100$

- <보 기> —
- ㄱ. 인구 천 명당 소방직 공무원 수는 A 구가 가장 많다.
 - ㄴ. 소방직 공무원 1인당 출동 건수는 B 구가 세 번째로 많다.
 - ㄷ. 조치 비율은 C 구가 가장 높다.
 - ㄹ. 조치 1건당 구조 인원수는 D 구가 E 구보다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4. 다음 <표>는 2024 ~ 2026년 ‘갑’ 부서의 사업별 편성 예산에 관한 자료이고, <대화>는 ‘갑’ 부서의 사업별 편성 예산에 대한 팀장과 주무관 사이의 대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대화>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값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24 ~ 2026년 ‘갑’ 부서의 사업별 편성 예산
(단위: 억 원)

사업\연도	2024	2025	2026
A	300	300	()
B	()	()	()
C	50	50	()
D	100	400	()
E	250	150	()
전체	850	1,000	()

- ※ 1) ‘갑’ 부서의 사업은 A ~ E로만 구성됨.
2) 사업별 편성 예산은 0원 이상이고, 1억 원 단위로만 편성됨.

— <대 화> —

팀장님, 2026년 사업별 예산 편성지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대비 2026년 사업별 편성 예산 증감액은 최대 1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대비 2026년 사업별 편성 예산 증감률은 최대 50%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편성 예산의 합은 175억 원 이상 80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26년 전체 편성 예산의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

팀장

주무관

편성지침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최소금액은 (가) 억 원이고,
최대금액은 (나) 억 원입니다.

- | (가) | (나) |
|-------|-----|
| ① 475 | 750 |
| ② 575 | 750 |
| ③ 575 | 850 |
| ④ 675 | 750 |
| ⑤ 675 | 850 |

25. 다음 <표>는 1970년과 2020년 ‘갑’국 6개 지역(A ~ F)의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970년과 2020년 지역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구분 지역	연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1970	2020	1970	2020	1970	2020
A		84.1	71.9	6.0	6.3	()	()
B		72.8	34.7	6.8	13.1	9.3	37.8
C		39.4	24.8	16.3	29.5	()	()
D		78.9	35.6	7.3	13.4	9.3	37.6
E		45.7	27.8	15.9	25.8	()	()
F		54.3	37.1	11.7	20.1	()	()

- ※ 1) 유소년부양비 = $\frac{\text{유소년인구}}{\text{청장년인구}} \times 100$
- 2) 노년부양비 = $\frac{\text{노년인구}}{\text{청장년인구}} \times 100$
- 3) 노령화지수 = $\frac{\text{노년인구}}{\text{유소년인구}} \times 100$
- 4) 인구는 유소년인구, 청장년인구, 노년인구로만 구성됨.
- ① 1970년과 2020년의 유소년부양비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D이다.
- ② 2020년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차이가 가장 작은 지역은 E이다.
- ③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1970년과 2020년이 같다.
- ④ 2020년 A ~ F 지역의 인구가 같다면, 청장년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A이다.
- ⑤ 2020년 인구 중 유소년인구 비중은 C 지역보다 E 지역이 크다.